

## 원효의 『인명입정리론기』에 대한 일본 학승 젠주(善珠)의 평가

Japanese Monk Zen-Ju's Evaluation of Won-Hyo's Commentary on Nyāyapraveśāśāstra

---

저자 (Authors)	김성철 Kim, Sung-Chul
출처 (Source)	<a href="#">불교학보 90</a> , 2020.3, 57-84(28 pages) <a href="#">BUL GYO HAK BO 90</a> , 2020.3, 57-84(28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a>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27699">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27699</a>
APA Style	김성철 (2020). 원효의 『인명입정리론기』에 대한 일본 학승 젠주(善珠)의 평가. 불교학보, 90, 57-8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4/01 15:1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원효의 『인명입정리론기』에 대한 일본 학승 젠주(善珠)의 평가

김성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일본 인명학의 시조 젠주와 『인명론소명등초』
  - 1. 젠주의 생애와 저술
  - 2. 『인명론소명등초』의 서술 방식과 인용 태도
- III. 『인명론소명등초』에 인용된 원효의 『인명입정리론기』
  - 1. 권위 있는 이론으로서 인용하는 단편들
  - 2. 규기의 해석과 다른데도 비판 없이 인용하는 단편들
  - 3. 이견으로서 인용한 후 비판하는 단편
- IV. 『인명입정리론기』에 대한 젠주의 평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42166)

## <한글요약>

일본 인명학의 대조(大祖)라고 불리는 젠주(善珠)의 『인명론소명등초』에는 12차례에 걸쳐 원효의 『인명입정리론기』가 인용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젠주가 이를 인용하는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원효의 논리사상에 대한 젠주의 평가를 조사해보았다. 『인명론소명등초』는 『인명대소(因明大疏)』라고도 불리는 규기의 『인명입정리론소』에 대한 주석이다. 젠주는 『인명대소』를 주석하면서 여러 학승들의 견해를 인용하는데, 그런 인용문들 가운데서 원효의 『인명입정리론기』 단편이 발견된다.

인용 빈도를 조사해 보면 ‘문궤, 정빈, 혜소, 현응, 지주, 원효, 원측, 태현…’의 순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다. 문궤의 경우 가장 많이 인용하는데[117회], 이는 규기가 『인명대소』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가장 많이 거론했기 때문이었다. 즉 어떤 학승의 인용 빈도가 잦은 것은 젠주가 그에 동의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원효의 『인명입정리론기』의 인용문으로 추정되는 12가지 단편은 ‘A. 권위 있는 이론으로서 인용하는 단편들’과 ‘B. 규기의 해석과 다른데도 비판 없이 인용하는 단편들’과 ‘C. 이견(異見)으로서 인용한 후 비판하는 단편’의 셋으로 분류된다. 12가지 단편에 순서대로 번호를 매길 때 A는 ④ ‘불의 뜨거움’에 대한 추론이 상부극성(相符極成)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이유, ⑥ 열반과 같은 상주법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 ⑧ 삼지작법의 추론식에서 이유[因]를 종법(宗法)이라고 부르는 까닭, ⑨ 삼지작법의 추론식의 실례[喩]에서 ‘수동품언(隨同品言)’의 의미에 대한 해설, ⑫ 부정인의 일부에서 사용한 ‘해당함[轉]’이라는 개념에 의한 구구인 재해석 등을 소재로 삼는 다섯 가지이고, B는 ① ‘유오타(唯悟他)’와 ‘유자오(唯自悟)’의 의미, ③ 삼지작법(三支作法) 추론식의 주장[宗]에 대한 정의, ⑤ 『인명정리문론』의 제4 계승에 대한 풀이, ⑦ 실례를 유(喩)라고 번역한 이유, ⑩ 삼지작법의 추론식의 실례에 대한 정의인 원리언(遠離言)의 의미 분석, ⑪ 사중(似宗) 가운데 세간상위(世間相違)의 오류 등을 소재로 삼는 여섯 가지이며, C에 속하는 단편은 ② 삼매(三昧)의 마음은 현량(現量)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논의 한 가지뿐이다. 젠주에게 원효는 인명학의 권위자였다.

②의 경우 규기는 삼매의 마음이 모두 현량이라고 주장한 반면, 원효는 『유가사지론』의 경문을 근거로 삼아 유분별영상 등을 대상으로 삼는 삼매의 마음은 현량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젠주는 이를 인용한 후 삼매의 마음에는 거친 것과 미세한 것이 있긴 하지만 모두 삼매에 속한다고 설명하면서 규기의 이론을 옹호하였다. 원효가 반박의 근거로 삼는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유분별영상을 대상으로 삼는 삼매에는 부정관, 자비관, 연기관, 계분별관 수식관 등의 12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런 관법 수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어적,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고, 언어적, 개념적 사유는 현량이 아니라 비량의 일종이기에, 원효의 생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원효, 인명입정리론기, 인명론소명등초, 젠주, 규기, 인명대소, 인명입정리론

## I. 들어가는 말

원효(元曉, 617-686)의 저술 가운데 인명학, 즉 불교논리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비량론(判比量論)』, 『인명입정리론소(因明入正理論疏)』, 그리고 『인명입정리론기(記)』의 셋을 들 수 있다. 『판비량론』은 현장이 번역 소개한 『인명입정리론』의 오류론(誤謬論)에 근거하여 현장(玄奘, 602-664)의 학문을 비판하는 저술이다. 『인명입정리론소』와 『인명입정리론기』의 경우 모두 『인명입정리론』에 대한 주석인데 『인명입정리론소(疏)』는 현존하지 않는다.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와 『별기』의 차이에 비추어볼 때, 『인명입정리론기(記)』는 초고(草稿), 『인명입정리론소(疏)』는 완성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sup> 『인명대소(因明大疏)』라고도 불리는 규기(窺基, 632-682)의 『인명입정리론소』에 대한 주석인 췌주(善珠, 723-797)의 『인명론소명등초(因明論疏明燈抄)』에 『인명입정리론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sup>2)</sup> 단편들 12가지가 인용되어 있다.

『판비량론』의 경우 1967년 필사본의 일부가 세상에 알려진<sup>3)</sup> 이후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왔는데<sup>4)</sup> 최근 들어 새로운 필사본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연구의 불이 일고 있다.<sup>5)</sup> 이와 달리 『인명입정리론기』의 경우 연구 성과가 단 두 가지뿐이다.<sup>6)</sup> 이는 현존하는 자료의 양이 빈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판비량론』이나 『인명입정리론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는 원문을 확정하고 번역하여 그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에 치중되

- 1) 『기(記)』가 초고, 『소(疏)』가 완성본이라고 보는 이유는 원효의 『대승기신론별기』와 『대승기신론소』의 차이점에 근거한다. 즉, 『대승기신론소』과 『대승기신론별기』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소』에서 간간이 『별기』를 언급하기에 『별기』가 『소』보다 먼저 저술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소』에서는 『별기』의 문장을 4×4조 운율에 맞추어 수정한다. 김성철 편저,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별기 대조』(서울: 오타쿠, 2019) 참조.
- 2) 이런 추정의 근거에 대해서는 ‘김성철, 「원효의 『인명입정리론』 주석과 그 특징」, 『불교학보』 제85집(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8), pp.36-39’ 참조.
- 3) 神田喜一朗 編, 『判比量論』(東京: 便利堂, 1967).
- 4) 이에 대해서는 ‘김성철,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서울: 지식산업사, 2003), pp.22-25 각주’ 참조.
- 5) 김성철, 「오치아이 소장 『판비량론』의 교정과분석」, 『불교학보』 74집(서울: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2016), pp.271-295; 김성철, 「판비량론 신출 필사본의 해독과 유식비량 관련 단편의 내용 분석」, 『한국불교학』 84집(서울: 한국불교학회, 2017), pp.215-247; 김영석, 「원효 『판비량론』의 새로운발굴: 고토미술관밋미즈이기념미술관소장본을 중심으로」, 『불교학보』 제81집(서울: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2017, pp. 93-115; 岡本一平, 「新出資料梅溪田藏本: 元曉撰『判比量論』斷簡について」, 『불교학보』 83집(서울: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2018), pp.89-106 등.
- 6) 福土慈稔, 「日本三論宗・法相宗にみられる海東仏教認識—法相宗の部—」, 『日本仏教各宗の新羅・高麗・李朝仏教認識に関する研究』第2卷 下(山梨縣: 身延山大學 東アジア仏教研究室, 2012); 김성철, 「원효의 『인명입정리론』 주석과 그 특징」, 앞의 논문.

어 있었다. 후속 과제는 이들 저술을 인용했던 동아시아 학승들의 평가와 그런 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비량론』이나 『인명입정리론기』를 자신들의 저술에서 인용했던 신라의 태현(太賢)이나 당의 혜소(惠沼, 慧沼), 그리고 일본의 젠주나 쿠라토시(藏俊) 등이 이 두 가지 문헌을 인용하는 맥락과 이에 대한 이들의 평가, 그리고 그런 평가의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어질 때 원효의 논리사상은 보다 명료하게 드러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후속 연구의 일환으로 젠주의 『인명론소명등초』에 인용된 원효의 『인명입정리론기』 단편 12가지를 소재로 삼아 인용 맥락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젠주의 평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 II. 일본 인명학의 시조 젠주와 『인명론소명등초』

### 1. 젠주의 생애와 저술

‘일본불교의 건설자, 헤이안(平安) 불교의 선구자, 일본 유식(唯識)의 완성자, 일본 인명학(因明學)의 대조(大祖)…’ 일찍이 「젠주 승정(僧正)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젠주(善珠, 723-797)의 생애와 학문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연구한 쿠사카 무린(日下無倫, 1888-1951)이 젠주에 대해 부여한 별칭들이다.<sup>7)</sup> 이와 더불어 옛 문헌에서 젠주를 ‘문수의 화현’<sup>8)</sup> 또는 유식 법상종의 종조인 ‘자은(慈恩)의 후신’<sup>9)</sup>이라고까지 부르며 숭경(崇敬)하였다는<sup>10)</sup>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일본 불교학계에서 젠주가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젠주는 나라(奈良) 시대(710-794) 초에 태어나 헤이안(平安) 시대(794-1192) 초까지 생존했던 인물로 추조사(秋篠寺)의 창건자이기도 하다. 그 스승은 규기(窺基, 632-682)가 개창한 법상종(法相宗)의 법맥을 받은 겐보(玄昉, ?-746)였다. 법상유식종(法相唯識宗)의 일본 전래는 흥복사(興福寺)를 중심으로 한 북사(北寺) 전승과 원흥사(元興寺)를 중심으로 하는 남사(南寺) 전승으로 구분되는데 젠주는 북사 전승에 속했다.<sup>11)</sup> 젠주가 태어난 나라 시대는 불교의 융성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다. 동대사(東大寺)를 개창한 일본 화엄종의 확립자 료오

7) 日下無倫, 「善珠僧正の研究」, 『佛教研究』 1卷, 2号(京都: 大谷大學佛教研究會, 1920), pp.100-101.

8) 『法相天台兩宗勝劣』, 日下無倫, 앞의 논문, p.100 참조.

9) 『成唯識論述記集成編』 卷1(『大正藏』67, p.6中).

10) 日下無倫, 앞의 논문, p.101.

11) 앞의 논문, p.127.

벤(良辨, 689-774), 일본 최초의 승정 교오키(行基, 668-749), 일본 율종의 개조 칸마(鑿眞, 688-763) 등과 같은 수많은 고승들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겉모습만 화려할 뿐, 그 이면에는 ‘불자의 가면을 쓰고서 뒤로는 미신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이비 승려의 무리’가 적지 않았기에 연력(延曆) 4년[785년]에는 출가인이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외국으로 추방한다는 황제의 칙령<sup>12)</sup>이 공포되기도 하였다.<sup>13)</sup> 젠주는 일본 불교계의 이런 퇴폐적 배경을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흥복사의 장경고(藏經庫)에 틀어박혀서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여 일본 유식학과 인명학을 창설하고 완성하였다.<sup>14)</sup>

자은(慈恩) 규기가 개창한 법상종의 가르침은 제2조인 혜소(慧沼, 649-714)에게 전해졌고 이어서 제3조인 지주(智周, 668-723)로 전승되었는데, 젠주의 스승 겐보오는 716년 당에 입국하여 18년 동안 지주 문하에서 법상유식의 학문을 연마한 후 5천여 권의 각종 경론을 갖고서 735년 일본으로 귀국한다. 겐보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불전 연구에 매진한 젠주는 반야, 법화, 정토, 미륵, 유식, 계율, 인명, 중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저술활동을 하였다. 『동역전등목록(東域傳燈目錄)』과 『제종장소록급증보(諸宗章疏錄及增補)』에 수록된 젠주의 저술목록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5)</sup>

- ① 『반야심경유찬기(般若心經幽贊記)』, ② 『법화경간심(法華經肝心)』, ③ 『신원무량수경찬초(新院無量壽經贊抄)』, ④ 『[미륵경]상하양경소([彌勒經]上下兩經疏)』, ⑤ 『약사본원경소(藥師本願經疏)』, ⑥ 『팔명경소(八名經疏)』, ⑦ 『금강수명경소(金剛壽命經疏)』, ⑧ 『불공견색경소(不空羂色經疏)』, ⑨ 『최승유심결(最勝遊心決)』, ⑩ 『최승경제기(最勝經題記)』, ⑪ 『주범망경약초(注梵網經略抄)』, ⑫ 『성유식론간심기(成唯識論肝心記)』, ⑬ 『성유식론분량결(成唯識論分量決)』, ⑭ 『유식증명기(唯識增明記)』, ⑮ 『[광]백론기]([廣]百論記)』, ⑯ 『인명의초(因明義抄)』, ⑰ 『인명론[소]명등초(因明論[疏]明燈抄)』, ⑱ 『법원림장기(法苑林章記)』, ⑲ 『법원의경(法苑義境)』, ⑳ 『미륵초(彌勒抄)』, ㉑ 『유식소서석(唯識疏序釋)』

이상의 두 목록집에는 젠주가 총 21부를 저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쿠사카 무린(日下無倫)에 의하면 현존하는 것은 위의 목록집에 실린 ⑤, ⑪, ⑬, ⑭, ⑰, ⑱, ㉑ 외에 『표무표

12) 『続日本紀』第38, 延曆四年五月己未二十五, “勅曰出家之人本事行道 今見衆僧 多乖法旨 或私定檀越 出入閭巷 或誣称仏驗 註誤愚民 非唯比丘之不慎教律 抑是所司之不勤捉搦也 不加嚴禁 何整緇徒 自今以後 如有此類 擯出外国 安置定額寺.”

13) 日下無倫, 앞의 논문, p.100.

14) 앞의 논문, pp.100-101.

15) 앞의 논문, pp.129-131에 근거한 목록.

장의경(表無表章義鏡)』의 8가지뿐이다.<sup>16)</sup>

그 제목으로 보아 이 가운데 ⑫, ⑬, ⑭와 ⑰은 유식학 관련 저술이고, ⑯과 ⑱은 인명학, 즉 불교논리학 관련 저술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문헌 가운데 ⑬과 ⑱에 원효의 『판비량론』이 집중적으로 인용되어 있으며, 특히 본 논문에서 연구 소재로 삼는 『인명입정리론기』의 산일문 12가지는 모두 『인명론소명등초』에서 추출한 것들이다.

## 2. 『인명론소명등초』의 서술 방식과 인용 태도

현장이 상카라스와민의 『인명입정리론』을 번역한 이후 많은 주석서가 저술되었는데 가장 권위 있는 주석이 『인명대소(因明大疏)』라고도 불리는 규기의 『인명입정리론소』였다. 『인명론소명등초』는 781년, 즉 젠주의 나이 59세 때의 저술로<sup>17)</sup> 법상종의 사자상승(師資相承) 계보에서 증조부 격인 규기의 『인명대소』에 대한 주석이다. 즉, 『인명입정리론』에 대한 복주(複註)다. 『인명론소명등초』에서는 먼저 ‘文’이라는 글자와 함께 ‘~至…者’와 같은 형식으로 『인명대소』의 문장 가운데 해설할 문단을 제시한 후 그 문단 내에 있는 구절이나 단어를 다시 거론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文 問敵者不至亦無過也 者

② 此問意云 敵者雖知瓶有無常 而猶未許聲有無常 何得以瓶而爲同品 此答意云 立敵共許聲瓶所作 彼此相似 故同品中 因爲正同 宗爲助同 立者本意立無常宗 生敵者故智學於瓶 爲宗同品 亦無過也

③ 應師云 同法喩言 顯因隨逐同品處 有隨同品言 此言能顯因第二相同品有故

④ 今案此解 因隨宗處 故云隨同品 若爾云何 解同喩 云顯因同品決定有性 即案彼意 有因之處 宗必隨逐 豈因隨宗處名隨同品

⑤ 曉師云 同喩中言隨同品言者 隨言不離離 即合舉能立因 隨宗同品 合令不離 由不離故方得顯宗 若有時合 而有離者 不能因此而顯彼也 如雨必不離雲 故見雨定知有雲 雲未必合雨 故望雲不定知雨 此因亦爾 故必須隨<sup>18)</sup>

16) 앞의 논문, pp.131-132.

17) 稻谷祐宣, 「因明論疏明燈抄の說話について」, 『密教文化』 57号(高野山出版社: 高野山出版社, 1961), p.63.

18) 善珠, 『因明論疏明燈抄』 卷3(『大正藏』68, p.303下).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단락을 나누어 원문자 번호를 매겨놓았는데, ①의 숨은 의미를 되살리려면 “[앞으로 내가 해설할 『인명대소』의] 글월[文]은 ‘問敵者不’에서 ‘亦無過也’까지[至]의 것[이다.]”라고 번역되는데, 규기의 『인명대소』에서 해당 문장을 찾아 생략한 부분을 모두 드러내면 다음과 같다.

問敵者不解 聲有無常 何得以瓶 而為同品 答 兩家 共許 所作同故 因正同品 立者所立 本立無常 故舉於瓶 為宗同品 亦無過也<sup>19)</sup>

‘問敵者不’로 시작하여 ‘亦無過也’로 끝나는 위와 같은 긴 문장이 앞의 ①에서는 ‘文 ~ 至…者’의 틀 속에 압축되어 있는 것이다.<sup>20)</sup> 이어지는 ②는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한 쟈주 자신의 해설이다. 이에 덧붙여 위에서 보듯이 ‘③ 應師云[현응 스님이 말하기를] …’와 같이 다른 주석가의 견해를 인용, 소개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④에서 보듯이 ‘今案[지금 생각해 보니] …’와 같이 또는 ‘今救之云, 今解云’ 등과 같이 말문을 열면서 다른 주석가의 견해에 대해서 쟈주 자신의 평(評)을 달기도 한다. 그리고 ‘⑤ 曉師云[원효 스님이 말하기를] …’에서 보듯이 여러 주석가들의 견해 가운데 하나로, 총 12곳에서 원효의 『인명입정리론기』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명론소명등초』에서 원효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하기 위해 쟈주의 인용 빈도를 조사하여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주석가	인용회수	인명학 관련 저술
문궤(文軌)*	117	인명론소(因明論疏), 이문론소(理門論疏)
정빈(定賓)	79	인명론소, 이문론소
혜소(惠沼/慧沼)	77	인명론찬요, 인명의단, 이량장, 인명론약찬
현응(玄應)	56	인명론소
지주(智周)	47	인명론소전기, 후기, 초략기
원효(元曉/判比量)*	24	인명론기, 인명론소, 판비량론
원측(圓測/西明)*	22	이문론소
태현(太賢/古迹)*	20	인명론고적기
벽법사(璧/壁法師)	15	인명론소

19) 窺基, 『因明入正理論疏』(『大正藏』44, p.113中).

20) 면밀히 조사해 보면, 『인명론소명등초』 총6권 가운데 제1권에서는 규기의 『인명대소』의 해당 문장 전체를 모두 인용한 후 해설하며, 제2권 이후부터 ‘文~至…者’의 틀 속에 넣어 생략 인용한다. 단, 제1권의 『인명대소』 인용문 가운데 “文大師行至究其源穴者”의 한 문장은만 예외다. 善珠, 『因明論疏明燈抄』(『大正藏』68, p.210中).

정안(淨眼)	11	인명론별의초, 인명론소, 이문론소
정매(靖邁)	7	인명론소, 인명론기,
신태(神泰)	7	인명론술기, 인명론소, 이문론술기
문비(文備)	4	인명론초, 이문론소
순경(順憬)*	3	인명론초
범법사(範法師)	2	인명론소, 이문론소
경흥(憬興)*	2	이문론의초
도증(道證)*	1	인명론소, 이문론소, 이문론초

\* 표는 신라승. 저술 표기에서 『인명입정리론』은 인명론, 『인명정리문론』은 이문론으로 축약<sup>21)</sup>

인용회수를 일별해 보면, 『인명론소명등초』에서 젠주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주석가는 문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젠주가 문귀를 추앙했거나 그의 이론을 지지했기 때문에 자주 인용한 것은 아니었다. 젠주가 문귀를 인용한 후 비판하는 문단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앞으로 내가 해설할 『인명대소』의] 문장[文]은 ‘일체법중(一切法中)’에서 ‘명능별시(名能別是)’까지[至]의 것[이다]. ‘일체이의 등(一體二義等)’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② 문귀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법들은 두 가지를 갖는다. 첫째는 자성으로 색, 성, 향 등을 말한다. 둘째는 차별로 상주, 무상 등을 말한다. 자성은 두 가지 이름을 갖는데, 첫째는 유법이고 둘째는 소별이다. 차별은 두 가지 이름을 갖는데 첫째는 법이고 둘째는 능별이다.”<sup>22)</sup> 이상.

③ 여기서 문귀 스님의 생각은 오직 모든 법들의 ‘뜻과 이름’의 차별만 드러낼 뿐이며, 모든 법들의 ‘본성 그 자체’는 드러내지 못한다. 모든 법들의 자체는 원래 이름이나 말에서 벗어나 있는데, 사물에 대한 이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뜻으로써 이름을 세운다. 자성 등의 이름은 모두 이런 자체 위에 뜻으로써 이름을 세운 것이다. 따라서 『유가사지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립되는 것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성이고 둘째는]<sup>23)</sup> 차별이다.”<sup>24)</sup> 따라서

21) 『인명론소명등초』는 신수대장경 pp.201-435에 실려 있는데, 총 235쪽 분량의 대작이기에 각 주석가의 인용회수를 조사할 때 ‘검색’ 기능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서 문귀를 인용하는 회수를 조사할 때, ‘文軌’라는 인명은 물론이고 ‘軌師, 文軌師, 文軌法師, 軌云, 軌法師’라는 단어의 출현 회수를 조사하여 인용회수를 산출하였다. 또 지주의 경우는 ‘智周’와 함께 지주가 저술한 『因明入正理論疏前記』, 『後記』 등의 약칭인 ‘前記’와 ‘有記’, ‘記云’ 등을 함께 검색하여 인용 회수를 합산하였고, 원효를 인용하는 언급의 회수를 셀 때에는, ‘元曉’라는 단어 이외에 ‘曉師, 曉云, 曉法師’ 그리고 이에 덧붙여 ‘判比量’이라는 단어까지 그 출현 회수를 합산하였다. 모든 계산에서 중복이 있을 경우 인용회수에서 감산(減算)하였다.; ‘朴世圭(禪應), 『文軌의 『因明入正理論疏』에 관한 연구』(서울: 동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0년), pp.45-46’에서도 인용 회수를 거론한다.

22) 文軌, 『因明入正理論疏』 卷1(『卍新續藏』53, p.682上).

자성이란 것은 법 그 자체의 위예다 뜻으로써 이름을 세운 것임을 안다.

④ 여기서 『인명대소』 저자의 생각은 [법 그] 자체 위의 세 가지 이름을 나타내지만 모든 법들 그 자체를 드러낸다. [이와 달리] 문귀 스님의 생각은 자체 위의 한 가지 이름을 제시하고서 다시 두 가지 이름을 열어 보이는데 법 그 자체는 드러내지 못한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愚情]으로 말미암아 “자성이란 모든 법들 그 자체이고 그에 대한 유법은 차별되는 것으로 자체 위에 지목된 이름이다.”라고 말한다. 이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체에 대해 미혹한데 어떻게 사물에 대한 이해를 발생시키겠는가? 따라서 『인명대소』 저자에 의거하여 결정을 취함이 옳다.<sup>25)</sup>

이는 모든 법들의 정체에 대한 논의다. 여기서 젠주는 논의의 소재가 되는 『인명대소』의 문장을 먼저 제시한 후<sup>①</sup>, 그 문장 가운데 ‘일체이의 등(一體二義 等)’에 대해 설명하면서 먼저 이에 대한 문귀의 설명을 소개한다<sup>②</sup>. 이어서 이런 문귀의 설명은 옳지 않다고 비판<sup>③</sup>한 후, ‘어리석은 생각[愚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문귀의 이론을 다시 비난한 후 규기의 이론에 지지를 보낸다<sup>④</sup>.

『인명론소명등초』에 문귀의 이론이 가장 많이 소개되어 있는 이유는 규기가 『인명대소』에서 문귀의 이론을 가장 많이 언급하며 비판했기 때문일 것이다. 규기는 신라승 원측에게도 그랬듯이, 문귀에 대해 경쟁의식이 있었고, 문귀의 학문을 경계하였다. 『인명입정리론』 산스크리트 원문의 주장명제인 ‘중(宗)’에 대한 정의 가운데 ‘visistayā’가 ‘차별위성(差別爲性)’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문귀가 현장으로부터 친히 받은 가르침에 의한 번역이라고 한다. 그런데 규기는 자신도 현장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는 ‘차별성고(差別性故)’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문귀에 대해 “인명학의 법칙을 노골적으로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나라와 산스크리트의 방언에 어둡다.”<sup>26)</sup>고 비난한다.<sup>27)</sup>

또 젠주는 56회에 걸쳐서 많이 인용하는 현응(玄應) 역시 비판한다. 예를 들어서 본 절 서두에서 젠주의 서술방식을 설명하면서 소개했던 인용문은 삼지작법의 추론식의 실례[喩]에서 ‘동질적 주제[同品]’에 대한 정의(定義) 가운데 ‘수동품언(隨同品言)’이라는 한역어의 의

23) [ ] 괄호 속의 내용이 원문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藏俊의 『因明大疏抄』 卷7(『大正藏』68, p.469上)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복원하여 번역한다. “所成立義有二—[自性 二]差別.”

24) 『瑜伽師地論』, 卷15(『大正藏』30, p.356下) 원문은 “所成立義有二種者 一自性 二差別所成立.”

25) 『因明論疏明燈抄』 卷2(『大正藏』68, pp.241下-242上).

26) 窺基, 『因明入正理論疏』 卷上(『大正藏』44, p.100中).

27) 이렇게 당나라 말에 서툴다는 비난과 함께 문귀가 서명사에 머물렀고 원측과 가까웠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많은 학자들이 문귀가 신라 승려일 것으로 추정한다. ‘박세규, 앞의 논문, pp.54-60’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모아놓았다.

미에 대한 설명과 논란이 실려 있는데, 젠주는 ‘③ 應師云’이라고 말문을 열면서 현응(玄應)의 이론을 소개한 후, 곧이어 ‘④ 今案此解[이제 이런 해석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현응의 이론을 비판한다.

또 젠주는 자신의 스승인 겐보에게 인명학을 가르쳤다는 당(唐)의 지주(智周)도 47회나 인용하고 있는데 지주의 『인명입정리론전기』의 한 구절을 인용한 후, “이런 해석은 허망하다. 뜻이 다름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도리어 문장의 다름에 집착한다. 이런 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sup>28)</sup>라고 비판한 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따라서 『인명론소명등초』에서 누군가를 자주 인용한다는 것이 그에 대한 젠주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II. 『인명론소명등초』에 인용된 원효의 『인명입정리론기』

『인명론소명등초』에는 원효의 『인명입정리론기』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편 12가지가 인용되어 있는데 각 단편을 출현 순서로 나열하면서 그 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29)</sup>

- ① ‘유오타(唯悟他)’와 ‘유자오(唯自悟)’의 의미
- ② 삼매(三昧)의 마음은 현량(現量)인가?
- ③ 삼지작법(三支作法) 추론식의 주장[宗]에 대한 정의
- ④ ‘불의 뜨거움’에 대한 추론이 상부극성(相符極成)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이유
- ⑤ 『인명정리문론』의 제4 계승에 대한 풀이
- ⑥ 열반과 같은 상주법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
- ⑦ 실례를 유(喩)라고 번역한 이유
- ⑧ 삼지작법의 추론식에서 이유[因]를 종법(宗法)이라고 부르는 까닭
- ⑨ 삼지작법의 추론식의 실례[喩]에서 ‘수동품언(隨同品言)’의 의미에 대한 해설
- ⑩ 삼지작법의 추론식의 실례에 대한 정의인 원리언(遠離言)의 의미 분석
- ⑪ 사중(似宗) 가운데 세간상위(世間相違)의 오류
- ⑫ 부정인의 일부에서 사용한 ‘해당함[轉]’이라는 개념에 의한 구구인 재해석

28) 『因明論疏明燈抄』卷1, 앞의 책, p. 215中.

29) 김성철, 「원효의 『인명입정리론』 주석과 그 특징」, 앞의 논문, pp.39-40에서 인용. 이 가운데 ⑥, ⑨, ⑩, ⑫는 의미가 보다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수정함[⑩은 오타 수정].

이런 12가지 단편의 내용과 선주가 이를 인용하는 맥락을 분석해 보면 이들 인용문은 다음과 같이 A, B, C의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A. 권위 있는 이론으로서 인용하는 단편들: 젤주가 규기나 자신의 해설을 뒷받침하거나 보완하는 이론으로서 인용하는 단편들로 위에 열거한 열두 가지 인용문 가운데 ④, ⑥, ⑧, ⑨, ⑫가 이에 해당한다.

B. 규기의 해석과 다른데도 비판 없이 인용하는 단편들: 『인명입정리론』의 특수 개념에 대한 원효의 설명이 규기의 주석과 전혀 다른데도 그 차이점을 언급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①, ③, ⑤, ⑦, ⑩, ⑪이 이에 해당한다.

C. 이견(異見)으로서 인용한 후 비판하는 단편: 규기의 해석과 다른 이론으로서 원효의 『인명입정리론기』의 문장을 인용한 후, 규기의 해석을 옹호하며 원효를 비판하는 단편으로 ②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A, B, C의 분류에 따라서 열두 가지 인용문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젤주의 인용 의도를 확인해 보겠다.

## 1. 권위 있는 이론으로서 인용하는 단편들

### 1) 단편 ④

단편 ④는 디그나가(Dignāga, 陳那, 480-540경)의 『인명정리문론(因明正理門論)』에 실린 논란을 소재로 삼는다. 일반적인 삼지작법의 추론식에서는 ‘이유[因]인 능증(能證)의 ‘법’을 근거로 삼아서 ‘주장[宗] 명제에 있는 소증(所證)의 ‘법’을 증명하는 것이 통례인데, 연기의 존재로 불을 추론하고, 불의 존재로 뜨거움을 추론하는 예를 제시하면서, ‘유법(有法)’으로 ‘유법’이나 ‘법’의 존재를 증명하는 추론식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보기에 ‘연기’는 색깔이라는 성질[法]을 갖기에 유법(有法)에 해당하고 ‘불’은 뜨거움이라는 성질[법]을 갖기에 이 역시 유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기를 보고서 불을 떠올릴 경우, ‘유법에 의해서 유법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sup>30)</sup> 이를 추론식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30) 『因明論疏明燈抄』 卷2, 앞의 책.

(추론식<sup>㉑</sup>)

(주장[宗]:) 저 멀리 보이는 연기[유법] 아래에 불[유법]이 있다.

(이유[因]:) 연기[유법]가 있기 때문에

(실례[喩]:) 마치 가까운 곳의 불과 같이

또 불을 보고서 뜨거움을 떠올릴 경우, 불은 ‘뜨거움을 갖는 유법’에 해당하고 뜨거움은 불의 성질인, ‘법’에 해당하기에 ‘유법에 의해서 법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sup>31)</sup> 그래서 다음과 같은 추론식이 작성 가능하다.

(추론식<sup>㉒</sup>)

(주장[宗]:) 불[유법]에는 뜨거움[법]이 있다.

(이유[因]:) 불[유법]이 있기 때문에

(실례[喩]:) 마치 가까운 곳의 불과 같이

이상과 같은 생각의 토대 위에서 『인명정리문론』의 가상(假想) 논적은 “[추론식<sup>㉑</sup>에서와 같이] 만일 유법에 의해서 다른 유법을 증명하거나, 혹은 [추론식<sup>㉒</sup>에서와 같이] 그에 해당하는 법을 증명하는 경우 그 이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sup>32)</sup>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두 가지 추론식에서 보듯이 연기에 의해서 불을 증명[<sup>㉑</sup>]하거나, 혹은 불에 의해서 뜨거움을 증명[<sup>㉒</sup>]하는 두 가지 사례의 경우 “유법으로 유법을 증명하고, 유법으로 법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이다.<sup>33)</sup> 젠주는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도중에, 원효의 『인명입정리론기』에서 발췌한 다음과 같은 문답을 인용한다.

원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질문: 누군가가 추론식을 세워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추론식<sup>㉓</sup>): (주장[宗]:) 연기가 있는 이곳에 불이 있다.

(이유[因]:) 연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례[喩]:) 마치 다른 ‘불이 있는 곳’처럼

31) 『因明論疏明燈抄』 卷2, 앞의 책, pp.262上-262中.

32) 『因明正理門論』 一卷(『大正藏』32, p.7上), “若以有法立餘有法 或立其法 如以烟立火 或以火立觸 其義云何.”

33) 窺基, 『因明入正理論疏』, 卷上, 앞의 책, p.102下.

(추론식④)

(주장[宗]:) 불이 있는 이곳에 [뜨거운] 촉감이 있다.

(이유[因]:) 불이기 때문에

(실례[喩]:) 마치 다른 불처럼

이는 ‘두 곳에 있는 불과 [뜨거운] 촉감이 상응하여 주장이 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불의 [뜨거운] 촉감이 그대로 불의 [뜨거운] 촉감의 성질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불’과 ‘(뜨거운) 촉감’이 유리(遊離)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입론자와 적론자]가 함께 인정하는 것인데 어찌 상부(相符)[극성(極成)의 오류]가 아니겠는가?

답변: 멀리서 ‘연기’ 등을 보거나 ‘마술사 주변의 불’을 본 것이 [없음]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환술인이 불속을 밟고 다니더라도 그 발이 타지 않는데 누군가가 이를 보고서 “불에는 뜨거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밥 짓는 [아궁이] 불속의 쥐를 보고서 “불속에 뜨거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추론식[比量]을 세워서 “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뜨거운 촉감이 있어야 한다[宗]”는 등[因, 喩]을 말한다. 따라서 상부[극성의 오류]는 없다.<sup>34)</sup>

이 인용문의 질문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연기가 있는 곳에 불이 있다.”거나 “불이 있는 곳에 뜨거움이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共知] 당연한 사실이기<sup>35)</sup> 이를 주장으로 삼을 경우 ‘주장의 오류[似立宗]’ 가운데 상부극성(相符極成, prasiddhasambandha)의 오류에 빠지는 것 아닌가?<sup>36)</sup> 위에서 질문자는 이를 묻는 것이다. 그런데 원효는 질문자가 제시한 추론식④를 소재로 삼아 그런 주장명제가 상부극성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원효에 의하면 “불이 있는 곳에 뜨거움이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당연한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불을 밟고 걸어가는 마술사’나 ‘밥 짓는 [아궁이] 불속의 쥐’를 보고서, 불이 뜨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위의 인용문에서 질문자가 제시하는 두 가지 추론 모두 올바른 추론이 아니다. 원효 역시 추론식 ㉞나 ㉟가 올바른 추론식이라고 생각했을 리는 없다. 원효는 ㉟의 추론식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질문자가 생각하듯이 ‘주장[宗]의 오류’ 가운데 ‘상부극성’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을 밟고 다니는 환술인’이나 ‘밥 짓는 [아궁이] 불속의 쥐’를 예를 제시했던 것이다.

34) 『因明論疏明燈抄』卷2, 앞의 책, p.262中.

35) 『因明正理門論』, 앞의 책, “於此中非欲成立火觸有性 共知有故.”

36) 『因明入正理論』1卷(『大正藏』32, p.11下), “相符極成者 如說聲是所聞.”

젠주는 자신의 주석 말미에서 이러한 원효의 해설을 단순 인용할 뿐 평을 달지 않는다. 디그나가의 『인명정리문론』이나 규기의 『인명대소』에서는 거론하지 않았던 ‘상부극성의 오류’와 관련한 논란이 원효의 『인명입정리론기』에 실려 있었고, 원효는 ‘불을 밟는 환술인’이나 ‘밥 짓는 불 속의 쥐’와 같은 기발한 예를 고안하여 이를 해결하였는데, 젠주는 이를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석을 보완하였다.

## 2) 단편 ⑥

앞에서 보았듯이 삼지작법의 추론식은 주장[宗], 이유[因], 실례[喩]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이유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 즉 ‘인의 삼상(三相)’ 가운데 동품정유성(同品正有性)과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에 대한 『인명대소』의 주석을 설명하면서 젠주는 원효를 인용한다. 다음은 디그나가의 구구인(九句因) 가운데 제8구의 정인(正因)을 갖는 추론식이다.

주장: 말소리는 무상하다

이유: 의지적 노력과 직결되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례: 마치 향아리와 같이

그런데 질문자는 ‘열반’을 실례로 들면서 이런 추론식이 상위결정(相違決定)의 인이나, 법자상상위인(法自相相違因)을 갖는 잘못된 추론식이라고 비판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상반된 추론식을 고안함으로써 위의 추론식을 상위결정의 오류에 빠뜨린다.

주장: 말소리는 상주한다.

이유: 의지적 노력과 직결되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례: 마치 열반과 같이

또 다음과 같이 법자상상위인을 갖는 추론식도 작성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장: 말소리는 상주해야 하리라[內聲應常]

이유: 의지적 노력과 직결되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勤勇無間所發性故]

실례: 마치 그대들의 열반과 같이[如汝涅槃<sup>37)</sup>]

이에 대해 답변하면서 젠주는 앞의 두 가지 추론식에서 실례로 든 열반이 ‘의지적 노력과 직결되어 발생하는 것’이라는 질문자의 생각을 비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열반의 발생’에 대한 문궤(文軌)와 정빈(定賓)과 원효(元曉)의 견해를 소개한다.

㉑ 문궤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산스끄리트본의 『인명정리문론』 해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리가 ‘의지적 노력과 직결되어 발생하는 것’은 가까운 원인에 의거하여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말하는 택멸무위인 열반은 먼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말하자면 산란한 마음으로 열반의 발생을 추구하여 방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무량한 마음의 간격을 두고서 열반이 비로소 나타난다. 따라서 ‘의지적 노력과 직결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㉒ 정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지적 노력으로 발생함은 다만 번뇌를 끊는 작용인데 열반의 이치는 의지적 노력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의지적 노력 따위와는 관계가 없으며 또한 열반이 의지적 노력으로 발생한다고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 따라서 부정인의 오류는 없다.

㉓ 원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발생하는 것’이란 ‘발동함’의 뜻이다. 상주하는 법의 경우, ‘발동함’이 없기 때문에 ‘의지적 노력과 직결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sup>38)</sup>

여기서 보듯이 세 스님 모두 열반은 ‘㉒ 의지적 노력[勤勇]과 ㉑ 직결되어[無間] ㉓ 발생하는 것[所發]’이 아니라고 본다. 문궤는 ‘㉑ 직결된다.’는 점을 부정하고, 정빈은 열반과 ‘㉒ 의지적 노력’이 무관하다는 점을 얘기하며, 원효는 [열반과 같은] 상주법은 ‘㉓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한다. 여기서 젠주는 질문자의 비판적 물음에 답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공고(鞏固)히 하기 위해 인명학의 권위자로서 문궤 및 정빈과 함께 원효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 3) 단편 ㉔

『인명입정리론』에서는 삼지작법 추론식의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론식을 예로 든다.

(주장[宗]:) 소리는 무상하다[聲無常].

37) 『因明論疏明燈抄』, 앞의 책, p.271下.

38) 『因明論疏明燈抄』, 앞의 책.

(이유[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所作性故]

(동질적 실례[同品言]:)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 마치 향아리 등과 같이

(이질적 실례[遠離言]:) 상주하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마치 허공과 같이

『인명입정리론』에서는 이 가운데 이유에 대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라는 것은 중법(宗法)의 말이다[所作性故者 是宗法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규기는 이에 대해 주석하면서 “이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라는 것은 중의 법이며 능립인 인(因)의 언사(言辭)다.”<sup>39)</sup>라는 설명만 할 뿐 더 이상 분석하지 않는다. 그런데 젠주는 이런 규기의 주석을 다시 해설하면서 원효를 인용한다. 그 전부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라는 것은 중의 법이며 능립(能立)인 인(因)의 언사다.”[라는 『인명대소』 문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법(有法)인 중(宗)에 의지하는 인(因)인 법의 언사다. 인에 비록 삼상(三相)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만 첫 번째 인(因)의 언사<sup>40)</sup>에 대해서만 결론지를 뿐이다. 오직 첫 번째의 인(因)의 상(相)을 드러낸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중법(宗法)의 언구(言句)다.”라고 말한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이유[因]’의 경우 중법이라고 이름이 바뀐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만약 [주장, 이유, 실례로 이루어진 삼지작법에서] 직접 ‘주장[宗]’ 속으로 들어가면 [능별(能別, 法, dharma)과 소별(所別, 有法, dharmin)의 두 가지 뜻이 마주 대하고 있는데, ‘능별’을 법이라고 이름하고 ‘소별’은 법이 아니다. 만일 [삼지작법 중의] ‘주장[宗]’으로 ‘이유[因]’를 대하면 ‘이유’가 법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주장’은 법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삼지작법 중에서] ‘주장[宗]’은 자기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며 그에 대한 ‘이유[因]’에 의존해야 비로소 이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이유[因]’는 앞을 대하면 ‘주장’에 대한 이해를 이치에 맞게 발생시키고, 뒤를 대하면 ‘실례[喻]’의 언구言句가 생기도록 모색한다. 논적의 이론을 상대할 때에는 [이렇게] 이치에 맞추면서 또 모색도 하여 능히 ‘주장[宗]’을 성립시킨다. 따라서 [이유(因)를] ‘중법(宗法)’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 때문에 ‘주장’과 그 종류가 같은 것 및 다른 것에 대해서 직접 동품(同品), 이품(異品)이라고 말하며, ‘이유’와 그 종류가 같은 것 및 다른 것에 대해서는 동법(同法) 및 이법(異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명학의 중지(宗旨)에서 변치 않는 법칙이다.<sup>41)</sup>

39) 窺基, 『因明入正理論疏』, 앞의 책, p.113上. “此中所作性者 是宗之法 能立因言.”

40) ‘인의 삼상’ 가운데 변시중법성(遍是宗法性).

41) 『因明論疏明燈抄』, 앞의 책, p.303中-上.

삼지작법의 이유[因]를 종법(宗法)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한 원효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장명제의 주어와 술어의 관계에서 능별(能別)인 술어가 법이고, 소별(所別)인 주어는 법이 아니듯이, 삼지작법의 주장과 이유 간의 관계에서는 능립(能立)인 이유가 법이 되기에 이유를 종법(宗法)이라고 부른다. 또 실례[喩]의 경우도 주장[宗]과 동류의 것은 동품(同品), 이류의 것은 이품(異品)이라고 부르지만, 이유[因]와 동류의 것은 동법(同法), 이류의 것은 이법(異法)이라고 부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켄주가, ‘종법이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규기가 못 다한 설명을 보완하면서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권위’로서 원효를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4) 단편 ⑨, ⑩<sup>42)</sup>

단편 ⑨ - 삼지작법의 추론식에서 실례[喩]를 들 때 ‘같은 경우[同品]의 실례’와 ‘다른 경우[異品]의 실례’의 두 가지를 든다. 이 가운데 같은 경우의 실례를 기술하는 말은 ‘수동품언(隨同品言)’이고 다른 경우의 실례는 ‘원리언(遠離言)’이다. 켄주가 『인명론소명등초』에서 인용하는 단편 ⑨에서 원효는 이 가운데 ‘수동품언(隨同品言)’의 의미를 설명한다. 켄주는 먼저 현응의 이론을 소개한 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어서 원효의 설명을 제시한다. 즉 현응은 ‘이유가 동품이 있는 곳을 따름[因隨逐同品處]’이 수동품언의 의미라고 설명하는데,<sup>43)</sup> 켄주는 현응의 설명과 반대로 ‘이유가 있는 곳에 반드시 주장이 수반됨[有因之處 宗必隨逐]’이라는 의미라고 말하면서 현응을 비판한 후, 이런 비판의 근거로 원효를 인용<sup>44)</sup>하는 것이다.<sup>45)</sup>

단편 ⑩ - 디그나가의 구구인(九句因)은 정인(正因) 2가지, 상위인(相違因) 2가지, 부정인(不定因)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인명입정리론』에서는 이 가운데 부정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42) 지면의 제약으로 상기한 단편의 경우 『인명입정리론기』의 인용문과 구체적인 설명 모두 생략한다. 『인명입정리론기』의 원문 번역과 해설은, 조만간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출간할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신라편의 해당 권을 참조하기 바란다.

43) “應師云 言顯因隨逐同品處 有隨同品言 此言能顯 因第二相 同品有故.”

44) 원효의 주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늘에 구름이 있을 것이다. 비가 오기 때문에”라는 추론은 타당하지만 “비가 올 것이다. 하늘에 구름이 있기 때문에”라는 추론은 타당하지 못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수동품언’이란 ‘주장[宗]을 따르는 동품(同品)이기에 결합하여 벗어나지 않게 함’을 의미한다.

45) 『因明論疏明燈抄』, 앞의 책, p.303下.

부정인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공, 둘째는 불공, 셋째는 동품일분전이품변전(轉), 넷째는 이품일분전동품변전(轉), 다섯째는 구품변전(轉), 여섯째는 상위결정이다.

不定有六一共 二不共 三同品一分轉異品遍轉 四異品一分轉同品遍轉 五俱品一分轉 六相違決定<sup>46)</sup>

원효는 이에 대해 문답 형식을 빌어서 주석하는데, 위의 인용문에서 셋째, 넷째, 다섯째의 부정인을 정의할 때만 사용했던 ‘해당함[轉]’이라는 개념으로, 구구인(九句因)을 재(再)정의한다. 예를 들어서 첫째의 공부정인은 구품변전(俱品遍轉), 둘째의 불공부정인은 구품변부전(俱品遍不轉)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규기의 주석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설명방식이다. 젠주는 원효의 이런 분석을 인용함으로써 구구인의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드러낸다.<sup>47)</sup>

## 2. 규기의 해석과 다른데도 비판 없이 인용하는 단편들

젠주가 『인명론소명등초』에서 인용하는 『인명입정리론기』의 12가지 단편 가운데 인명학 이론과 관련하여 원효가 규기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에도 젠주가 평가 없이 단순 인용하는 단편들의 수가 가장 많다. 즉, 앞에서 열거했던 단편들 가운데 ①, ③, ⑤, ⑦, ⑩, ⑪번 단편이 그런 것들이다. 이 가운데 ①, ⑤, ⑪번 단편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를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해 이미 심도 있게 분석한 바 있는데,<sup>48)</sup> 먼저 그에 대해 개관한 후 ③, ⑦, 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다.

### 1) 단편 ①, ⑤, ⑪

단편 ①은 『인명입정리문론』 서두에 실린 “능립(能立)과 능파(能破) 및 사이비 [능립과 능파]는 오직 다른 이를 알게 하는 것[唯悟他]이며, 현량과 비량 및 사이비 [현량과 비량]은 오직 스스로의 앎을 위한 것[唯自悟]이다.”라는 문장에서 유오타[오직 남을 알게 함]와 유자오[오직 스스로 앎]라는 문구에 대한 분석과 관계된다. 규기의 경우 ‘오타(悟他)’나 ‘자오(自悟)’, ‘유(唯)’로 분석하여 그 의미에 대해 해설하는데, 원효는 이와 달리 ‘유타(唯他)’와 ‘유오(唯悟)’, ‘유자(唯自)’와 ‘유오(唯悟)’의 새로운 조합으로 분석하여 ‘유(唯)’의 의미를 명료화

46) 『因明入正理論』, 앞의 책, p.11下.

47) 『因明論疏明燈抄』, 앞의 책, p.355上-中.

48) 김성철, 「원효의 『인명입정리론』 주석과 그 특징」, 앞의 책, pp.41-44.

게 드러낸다.<sup>49)</sup> 젠주는 이를 소개만 할 뿐 평가하지 않았다.

단편 ⑤에 대해 설명해 보자. 디그나가의 『인명정리문론』에는 구구인(九句因)을 갖는 아홉 가지 추론식의 주장명제와 이유명제를 두 수의 계송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한역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①常②無常③勤勇 ④恒⑤住⑥堅牢性 ⑦非勤⑧遷⑨不變 由(1)所量等九

(1)所量(2)作(3)無常 (4)作性(5)聞(6)勇發 (7)無常(8)勇(9)無觸 依①常性等九

설명의 편의를 위해 번호를 매겼는데 윗줄의 원문자는 주장명제의 술어, 아랫줄의 괄호 문자는 이유명제를 가리킨다. 주장명제의 주어는 모두 “소리는~”이다. 예를 들어서 ①이 주장명제의 술어가 될 경우 (1)이 이유명제가 되면서 다음과 같은 추론식이 작성된다.

주장: 소리는 ①상주[常]한다.

이유: (1)인식대상[所量]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운데 ④, ⑤, ⑥의 경우 현장이나 규기, 정빈이나 원측 모두 ‘恒, 住, 堅牢性(항, 주, 견뢰성)’으로 끊어 읽었는데, 원효만은 이와 달리 ‘恒住, 堅, 牢性(항주, 견, 뢰성)’으로 독특하게 끊어 읽으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규기와 원효의 주석이 다른데도 젠주는 단지 원효의 설명을 소개만 할 뿐 비판하거나 평을 하지 않는다.

단편 ⑩은 추론식이 범하는 논리적 오류들에서 ‘잘못된 주장[似宗]’ 가운데 하나인 ‘세간상위의 오류’에 대한 것이다. 『인명입정리론』에서 예로 든 세간상위의 오류를 범하는 추론은 다음과 같다.

주장: ‘토끼를 갖는 것’은 달이 아니다[懷兔非月].

이유: 존재이기 때문에[有故].

달에서 토끼 모양이 보이기에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토끼를 갖는 것[saśin]’과 ‘달[candra]’은 동의어였다. 이는 마치 우리가 금성을 셋별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인명입정리론』에는 이런 추론의 실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규기는 ‘마치 해와 별 등과 같다[如日星等]’는 명제를 실례로 제시한다. 그러나 원효는 “마치 창문과 같다[猶如窓

49) 『因明論疏明燈抄』, 앞의 책, p.221中-下.

闢.”고 실례를 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물론 이 추론식이 세간상위의 오류를 범하긴 하지만, 입론자의 입장에서 나름의 논리성을 갖는다는 점을 알려주는 원효의 기발한 착안이었다. 이렇게 원효가 규기와 전혀 다른 실례를 고안했지만, 젠주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평을 하지 않았다.<sup>50)</sup>

## 2) 단편 ③, ⑦, ⑩

지면의 제약으로 단편 ③, ⑦, ⑩은 인용문의 내용만 간략히 소개한다.

단편 ③ - 『인명입정리론기』에 실린 삼지작법 추론식의 주장[宗]에 대한 정의 가운데 ‘스스로 희구함에 따라서 성립되는 것[隨自樂爲所成立性]’의 의미를 설명할 때 규기는 ‘수자(隨自)’와 ‘락위소성립(樂爲所成立)’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원효는 ‘수락(隨樂)’과 ‘자락(自樂)’으로 구분하여 해설한다. 이렇게 규기와 원효의 견해가 다른데도 젠주는 원효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sup>51)</sup>

단편 ⑦ - 삼지작법의 추론식에서 실례의 산스끄리트 원어가 *dr̥stānta*(達利瑟致案多)로 *dr̥sta*[見]와 *anta*[邊]가 결합한 복합어이기에 한문으로 직역하면 견변(見邊)이 된다. 젠주는 먼저 서명사(西明寺) 원측(圓測)의 풀이를 소개한다. 그 후 원효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간략히 그 의미를 해설하는데, 규기의 이론은 원측과 같았다고 소개만 할 뿐 원효의 설명에 대해 평을 하지 않는다.<sup>52)</sup>

단편 ⑩ - 삼지작법의 추론식에서 실례[喩]를 들 때, 같은 경우의 실례[同法喩]와 다른 경우의 실례[異法喩]의 두 가지를 들게 되는데, 이 가운데 다른 경우의 실례를 나타내는 진술을 ‘원리언(遠離言, *vyatirekavacana*)’이라고 부른다. 규기는 ‘원리’의 의미를 설명할 때 ‘실체가 멀리 있는 것[體疎]’이 ‘원’이고 ‘의미가 어긋난 것[義乖]’이 ‘리’라고 말하면서 원과 리를 구분하여 해설한 반면, 원효는 ‘원리’란 ‘잠시도 결합하는 일이 없음[無暫合]’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후 다시 상세히 설명한다. 즉 원효는 원과 리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기와 원효의 해석 방식이 다른데도 젠주는 원효의 해석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50) 앞의 책, p.270下-271上 ; 단편 ⑩에 대한 분석은 김성철, 앞의 논문, pp.52-54 참조.

51) 앞의 책, p.253下.

52) 앞의 책, p.285中.

### 3. 이견으로서 인용한 후 비판하는 단편 ②

디그나가의 인명학에서는 인식방법의 종류로 현량과 비량의 두 가지만을 든다. 그런데 규기는 『인명대소』에서 현량에 대해 설명하면서 “삼매의 마음은 맑디맑아서 대상이 모두 밝게 증득되어 어떤 법을 대상으로 삼아도[隨緣何法] 모두 현량이라고 이름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삼매의 상태에 들어간 마음은 그 대상이 어떠한 것이든 모두 현량이라는 것이다. 젠주는 규기의 이런 주장을 주석하면서 문답 형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규기와 상반된 견해를 피력하는 원효의 설명을 인용한다.

묻는다. 삼매에 들어간 의식은 모두 현량인가, 현량 아닌 것이 있는가?

답한다. 원효 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삼매의 마음이 다 현량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이런 뜻은 옳지 않다. [이를] 알 수 있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이는] 『유가사지론』에서 삼매의 대상[三摩地所緣]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첫째는 유분별영상을 대상[緣]으로 삼고, 둘째는 무분별영상을 대상[緣]으로 삼으며, 나중에 드디어 할 일을 다 하면[所作成就]<sup>53)</sup> 영상을 초월하여 ‘앞의 대상들’ 중 유[분별영상]과 무[분별영상]에 대해서 현량의 지견이 생긴다.<sup>54)</sup> 이 문장으로 말미암아, “비록 삼매의 마음에 들어가도 앞의 유분별영상은 현량이 아니고, 영상을 초월하면 비로소 현량의 지견(知見)이 된다.”는 점을 안다.<sup>55)</sup>

앞에서 규기는 삼매의 상태에서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모두 현량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인용문에서 원효는 이런 생각을 반박하면서 “삼매의 대상[三摩地所緣]에는 유분별영상과 무분별영상이 있는데, 아라한이 되어 이런 영상들을 초월할 때 비로소 현량이 지견이 생긴다.”는 『유가사지론』의 경문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젠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원효의 생각을 비판하며 규기의 주장을 옹호하였다.

이제 이를 해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삼매의 마음은 염념마다 거칠거나 미세함이 한결 같지 않다[定心念念 麤細不同]. 앞의 영상을 대상으로 삼는 것[緣前影] 등은 미세한 것 중의 거친 것이고, 초월한 다음에 유와 무의 분별에 대한 현량의 지견은 미세한 것 중의 미세한 것이다.

53) 『유가사지론』에서는 이를 所作成辦이라고도 쓰는데, 둔론의 『유가론기』의 설명에 근거할 때 이는 아라한의 오도송인 “我生已盡 梵行已立 所作已辦 不更受有”의 所作已辦을 의미한다. ‘김성철, 『원효의 『인명입정리론』 주석과 그 특징』, 앞의 책, pp.49-52’ 참조.

54) 『瑜伽師地論』 卷26(『大正藏』30, p.427上-下).

55) 『因明論疏明燈抄』, 앞의 책, pp.221下-222上.

비록 거칠거나 미세함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똑같이 현량이다. 따라서 온갖 삼매의 마음들은 어떤 법을 대상으로 삼아도 모두 현량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저 논문과 위배되지 않는다.<sup>56)</sup>

여기서 보듯이 젠주는 유분별영상이나 무분별영상을 대상으로 삼는 삼매의 마음은 ‘미세한 것 중의 거친 것’이고 이런 영상을 초월한 이후[아라한이 된 다음] 이런 두 가지 대상에 대한 얹은 ‘미세한 것 중의 미세한 것’이긴 하지만, 미세하든 거칠든 삼매의 마음은 모두 현량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앞의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원효는 유분별영상 등은 현량이 아니라고 보았다. 누구의 생각이 옳을까?<sup>57)</sup> 원효가 인용하는 『유가사지론』에서는 유분별영상으로 ① 부정(不淨), ② 자민(慈愍), ③ 연성연기(緣性緣起), ④ 계차별(界差別), ⑤ 아나과나념(阿那波那念) … ⑫ 고제집제멸제도제(苦諦集諦滅諦道諦) 등의 12가지를 든다. 여기서 ‘① 부정’을 삼매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오정심(五停心) 가운데 부정관 수행을 의미하고, ‘② 자민’을 삼매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비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법 수행을 위해서는 ‘더러움’이나 ‘자비’와 같은 개념은 물론이고, 그 소재가 되는 ‘몸[身]’이나 ‘일체중생’과 같은 개념을 떠올려야 한다. 즉 유분별영상들이 삼매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언어적, 분별적, 개념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디그나가의 불교논리학에서는 개념지를 비량, 즉 추론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서 ‘소[牛]’를 보고서 ‘소’라고 파악하는 것은 ‘타(他)의 배제[anyāpoha]’를 통한 인지이기에 추론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sup>58)</sup> 따라서 삼매의 마음이라고 해도 부정이나 자비와 같이 유분별영상을 대상으로 삼는 삼매의 마음이 현량일 수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젠주가 원효를 인용하는 목적이 대개는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거나 논의를 보완하는 데 있었지만, 원효의 견해를 무조건 수용한 것만은 아니었다. 단편 ②에서 원효가 “모든 삼매의 마음이 다 현량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이런 뜻은 옳지 않다.”라는 비판적 언사로 말문을 열었고, 여기서 원효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론이 자기 학계의 종조인 규기의 주장이라는 점이 명확하기에 규기를 옹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원효를 비판했던 것으로 보인다.

56) 『因明論疏明燈抄』, 앞의 책, p.222上.

57) 이상의 논의는 ‘김성철, 앞의 책, pp.52-54’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58) Pind, Ole Holten, *Dignāga's philosophy of language : Pramāṇasamuccayavṛtti V on anyāpoha by Dignāga* (Wien: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Wien, 2009), p.76.

### Ⅲ. 『인명입정리론기』에 대한 젠주의 평가

지금까지 일본 학승 젠주의 『인명론소명등초』에서 인용하는 원효의 『인명입정리론기』 단편 12가지의 내용과 인용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원효에 대한 젠주의 평가를 확인해 보았다. 이 가운데 ④ ‘불의 뜨거움’에 대한 추론이 상부극성(相符極成)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이유, ⑥ 열반과 같은 상주법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 ⑧ 삼지작법의 추론식에서 이유[因]를 종법(宗法)이라고 부르는 까닭, ⑨ 삼지작법의 추론식의 실례[喩]에서 ‘수동품언(隨同品言)’의 의미에 대한 해설 ⑫ 부정인의 일부에서 사용한 ‘해당함轉’이라는 개념에 의한 구구인 재해석 등의 5가지 단편에서 젠주는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권위자로서 원효를 인용하였다. 또 ① ‘유오타(唯悟他)’와 ‘유자오(唯自悟)’의 의미에 대한 설명, ③ 삼지작법 추론식의 주장[宗]에 대한 정의, ⑤ 『인명정리문론』의 제4 계송에 대한 풀이, ⑦ 실례를 유(喩)라고 번역한 이유, ⑩ 삼지작법의 추론식의 실례에 대한 정의인 원리언(遠離言)의 의미 분석, ⑪ 사중(似宗) 가운데 세간상위(世間相違)의 오류의 실례 고안 등의 6가지 인용문의 경우 그 내용이 규기의 주석과 전혀 다른데도 젠주는 이에 대해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인용만 할 뿐이었다. 12가지 인용문 가운데 젠주가 원효를 비판한 유일한 것은 ② 삼매(三昧)의 마음은 현량(現量)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었다. 규기는 삼매의 마음은 모두 현량이라고 주장한 반면 원효는 『유가사지론』에서 말하는 유분별영상 등을 예로 들면서 규기의 생각을 반박하였다. 유분별영상이란 ① 부정(不淨), ② 자민(慈愍), ③ 연성연기(緣性緣起), ④ 계차별(界差別), ⑤ 아나파나념(阿那波那念) … ⑫ 고제집제멸제도제(苦諦集諦滅諦道諦) 등의 12가지인데 이를 삼매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의미에 대한 언어적, 분별적, 개념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디그나가의 아포하(apoha) 이론에 근거할 때 언어적, 개념적 이해는 현량이 아니라 비량의 일종이기에 삼매의 마음이 모두 현량인 것만은 아니라는 원효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젠주는 대부분 인명학의 권위자로서 원효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단편 ②의 경우 원효가 규기의 이론을 비판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젠주는 자신의 종조인 규기를 옹호하기 위해서 원효의 비판에 대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반박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인명론소명등초』에 인용된 원효의 『인명입정리론기』만을 소재로 삼아 연구하여 내린 결론이다. 젠주는 『인명론소명등초』에서 원효의 『판비량론』 역시 여러 차례 인용하고 있다. 젠주가 『판비량론』을 인용하는 맥락과 태도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때, 원효의 논리사상 전반에 대한 젠주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한다.

## 〈참고문헌〉

### 1. 원전

『成唯識論述記集成編』 卷1(『大正藏』67)

『続日本紀』 第38

『瑜伽師地論』, 卷15(『大正藏』30)

『因明大疏抄』 卷7(『大正藏』68)

『因明論疏明燈抄』 卷3(『大正藏』68)

『因明入正理論』 1卷(『大正藏』32)

『因明入正理論疏』 卷上(『大正藏』44)

『因明入正理論疏』 卷1(『大正藏』53)

『因明正理門論』 1卷(『大正藏』32)

### 2. 단행본

김성철, 『원효의 관비량론 기초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2003,

김성철 편저,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 별기 대조』, 서울: 오타쿠, 2019.

朴世圭(禪應), 『文軌의 『因明入正理論疏』에 관한 研究』, 서울: 동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0.

神田喜一郎 編, 『判比量論』, 東京: 便利堂, 1967.

福土慈稔, 「日本三論宗・法相宗にみられる海東仏教認識—法相宗の部—」, 『日本仏教各宗の新羅・高麗・李朝仏教認識に関する研究』 第2卷 下, 山梨縣: 身延山大學 東アジア仏教研究室, 2012.

Pind, Ole Holten, *Dignāga's philosophy of language : Pramāṇasamuccayavṛtti V on anyāpoha by Dignāga*, Wien: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Wien, 2009.

### 3. 논문

- 김성철, 「원효의 『인명입정리론』 주석과 그 특징」, 『불교학보』 제85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8, pp.33-59.
- \_\_\_\_\_, 「판비량론 신출 필사본의 해독과 유식비량 관련 단편의 내용 분석」, 『한국불교학』 84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2017, pp.215-247.
- \_\_\_\_\_, 「오치아이 소장 『판비량론』의 교정과 분석」, 『불교학보』 74집, 서울: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2016, pp.271-295.
- 김영석, 「원효 『판비량론』의 새로운발굴: 고토미술관및미츠이기념미술관소장본을중심으로」, 『불교학보』 제81집, 서울: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2017, pp. 93- 115.
- 岡本一平, 「新出資料梅溪旧蔵本: 元曉撰 『判比量論』 断簡について」, 『불교학보』 83집, 서울: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2018, pp.89-106.
- 稻谷祐宣, 「因明論疏明燈抄の説話について」, 『密教文化』 57号, 高野山出版社: 高野山出版社, 1961, pp.63-78.
- 日下無倫, 「善珠僧正の研究」, 『佛敎研究』 1卷, 2号, 京都: 大谷大學佛敎研究會, 1920, pp.99-143.

<Abstract>

## Japanese Monk Zen-Ju's Evaluation of Won-Hyo's Commentary on *Nyāyapraveśāsāstra*

Kim, Sung-Chul

Won-Hyo(元曉) wrote a commentary on *Nyāyapraveśāsāstra*. Some passages from it are quoted in *Luminous interpretation of Kuī-Ji's (窺基) commentary on Nyāyapraveśāsāstra* (因明論疏明燈抄) written by Japanese monk Zen-Ju (善珠). Zen-Ju cited many other monks' comments in his book. Mun-Gue (文軌) is the most cited monk in his book. However, throughout his book, we find criticism of Mun-Gue. Therefore, we can see that the frequency with which he quotes is not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respect. We can find twelve paragraphs of Won-Hyo's commentary in Zen-Ju's book. The subjects are as follows.

- (1) On the meaning of *parasamvide* (唯悟他) and *ātmasamvide* (唯自悟)
- (2) Are all the *samādhi*-minds *pratyakṣa* (direct perception)?
- (3) The definition of *pratijñā* in the syllogism of Buddhist logic
- (4) The reason an inference to prove the hotness of fire doesn't fall in the fallacy of *prasiddhasambandha* (相符極成)
- (5) An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verse of the *Nyāyamukha* of Dignāga
- (6) Eternal dharmas, such as *nirvāṇa*, that are not generated
- (7) The reason why *drṣṭānta* is translated into Chinese word *yù* (喻) that means example
- (8) The reason the reason (因) of Buddhist Inference is called as *pakṣadharmā*
- (9) Explanation of the meaning of *sapakṣānugamavacana* (隨同品言) in a positive example of a syllogism
- (10) Analysis of the meaning of *vyatirekavacana* (遠離言) in a negative example of a syllogism

- (11) Fallacy of lokaviruddha (世間相違) in fallacious theses  
 (12) Reinterpretation of hetucakra by the concept of vṛtti (轉) used in the naming of anaikāntika hetu (不定因)

These paragraphs were arranged according to the order in which they were cited. They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In the first group, there were five kinds of paragraphs which are quoted to support or supplement Zen-Ju's commentary ((4), (6), (8), (9), (12)). In the second group, there were six kinds of paragraphs that contain different idea from Kuī-Jī's but Zen-Ju did not criticize or evaluate them ((1), (3), (5), (7), (10), (11)). The last paragraph was the only one criticized by Zen-Ju ((2)).

Zen-Ju thought Won-Hyo was the authority of Buddhist Logic. However, when Won-Hyo criticized Kuī-Jī's idea explicitly ((2)), Zen-Ju defended Kuī-Jī by refuting such criticism. Kuī-Jī insisted that all the objects of sāmādhi were cognized only by pratyakṣa. However, Won-Hyo criticized the idea of Kuī-Jī writing that discriminated images were not cognized by pratyakṣa. In Buddhist logic, they thought that discriminations or verbal knowledges were recognized not by pratyakṣa but by anumāṇa (anyāpoha). Therefore, I do not think Zen-Ju was successful in criticizing Won-Hyo.

#### • Keywords

Won-Hyo, Zen-Ju, Kuī-Jī, *Nyāyapraveśāsāstra*, Buddhist logic, Mun-Gue, Japanese monk

논문접수일: 2020년 2월 14일, 심사완료일: 2020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2020년 3월 12일.